

전남

‘나주 영상테마파크’ 어떡하나

민간위탁 관리로 사용자 부담 방송사 촬영 기피

관객들도 좋아... 활성화 위해 市 직영 바람직

나주시가 140여억원을 투자한 '나주 영상테마파크'가 민간위탁으로 관리되면서 방송사 드라마촬영이 줄고 관객들의 발걸음이 끊겨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다.

이 때문에 '나주 영상테마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나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등 운영 방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MBC 드라마 '주몽'을 유치하면서 전남도와 나주시가 공동으로 80여억원을 투자해 '나주 영상테마파크'를 조성했다.

'영상테마파크'를 조성한 후 후속 드라마 유치 등에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 등 각종 공사비로 지난 2009년 8월 지 총 142억8천여만원을 투자했다.

이 과정에 나주시는 세트장 활성화와 관련한 명분으로 지난 2008년 8월 나주관광개발 측에 운영 관리를 맡겨 위탁 관리하고 있다.

모 방송사의 경우 지난해 4월 3일간 일정으로 '나주 영상테마파크'에서 드

라마 촬영을 계획했으나 위탁관리업체가 관리비 명목으로 350여만원을 요구, 비용 부담 때문에 하루밖에 촬영을 하지 못한 채 서둘러 철수했다.

이 같은 사례는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선덕여왕'과 '천추태후', '거상 김만덕' 등의 드라마가 '나주 영상테마파크'에서 촬영되지 못한 대표적 사례로 해당 제작사 팀의 사전 위탁 관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방송사 관계자들에게 이 같은 사례가 널리 알려져 민간 위탁 이후 드라마 촬영이 이뤄진 것은 단 2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은 이미 나주시가 MBC와는 10년간, KBS와는 5년간 세트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협정을 체결한 상태여서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위탁업체가 경영수익을 감안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드라마 유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중에 있으며 위탁업체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방송사들의 세트장

영광·신안 유통회사 국비지원 받는다

농림부 공모 선정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한 올해 정부지원 유통회사 공모에서 영광 유통주식회사와 신안 농수산유통주식회사가 선정됐다.

공모선정에 따라 이들 유통회사에는 앞으로 3년 동안 각각 국비 20억원이 운영비 등으로 지원되고 물품확보 자금 30억원 저리융자와 대형유통업체 납품 마케팅 활동도 지원된다.

지난해 자본금 45억원으로 설립된 영광유통주식회사는 농업인 2천여명

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굴비, 한우, 고추, 쌀 등을 주력품목으로 산지유통의 조직화·기업화에 나서고 있다.

신안 농수산유통주식회사는 출자금 30억원을 바탕으로 산지조직화 및 납품 마케팅 등을 거쳐 상공기능성이 높은 곳을 정부지원 유통회사로 뽑았다.



철쭉 목욕 출하 손길 분주

구례군 토지면 구산리 들녘에서 주민들이 철쭉과 자산홍 목욕을 캐고 있다. 목욕들은 1그루당 600원에 서울 목욕시장으로 출하되고 있다.

계속된 비와 낮은 기온, 적은 일조량으로 인해 보리와 마늘, 양파 등 전답지대 대표 월동작물의 생육이 예년에 비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마늘의 경우 지난해보다 키가 2cm 덜 자랐고 마늘 이파리도 지난해 7.8개에서 올해는 7개로 감소했다.

양파의 키도 지난해보다 1.3cm 덜 자랐으며 이파리 수도 6.7개에서 6.5개로 줄어들어 생육상태가 좋지 못했다.

보리도 예상 결과 키가 예년에 비

새 열곡

“꿈과 보람 샘솟는 나주교육 실현”

김인숙 나주교육장



“꿈과 보람이 샘솟는 'New Dream 나주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나주교육청 김인숙(58) 교육장은 “일선 학교가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겠다”며 “바른 인성기르기와 기초·기본학력 향상, 다양한 특기와 재능개발, 나주의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선진교육환경 조성·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출신인 김 교육장은 전남대 사범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1976년 완도 신지 서중학교 교사로 첫 발령받아 전남도교육청 장학사, 전남미용교 교장, 담양교육청 교육과장 등을 역임했다.

효상공인중개사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효상공인중개사' (Hyosang Gongin Jeonggaesa) with contact info T.062-376-4056 and H.010-3128-1515. Services include land, house, and commercial real estate.

대인동삼일부동산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Daedong Samil Budeondan) with contact info (FAX)223-1772 and 011-602-2532. Services include land, house, and commercial real estate.

태양광발전소부지구함

Advertisement for solar power plant land parcels, listing various locations and details. Includes contact info for (주) 땅심.

Larg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국민법률경매 (Jumin Beopbeol Gyeongmae) featuring a detailed table of land parcels for auction across various districts in Jeonnam.